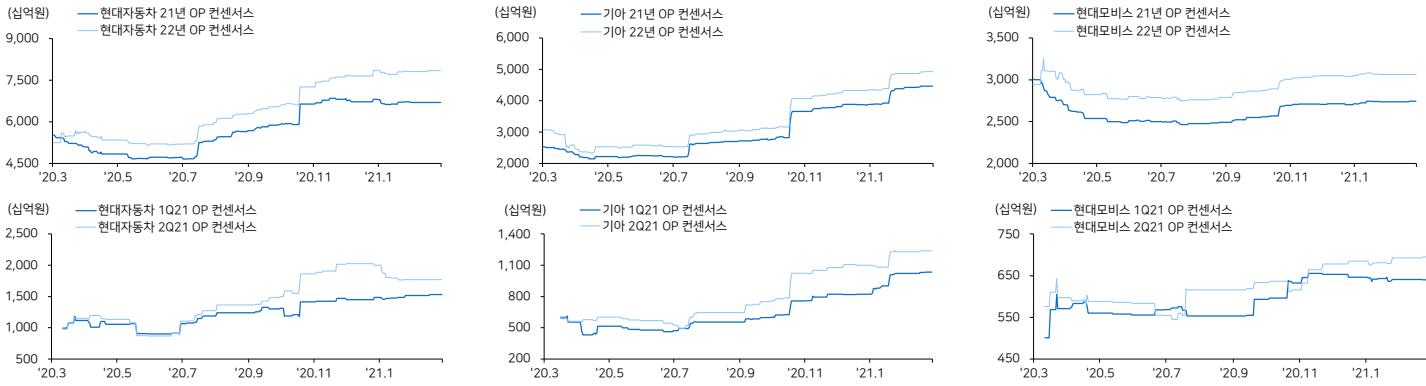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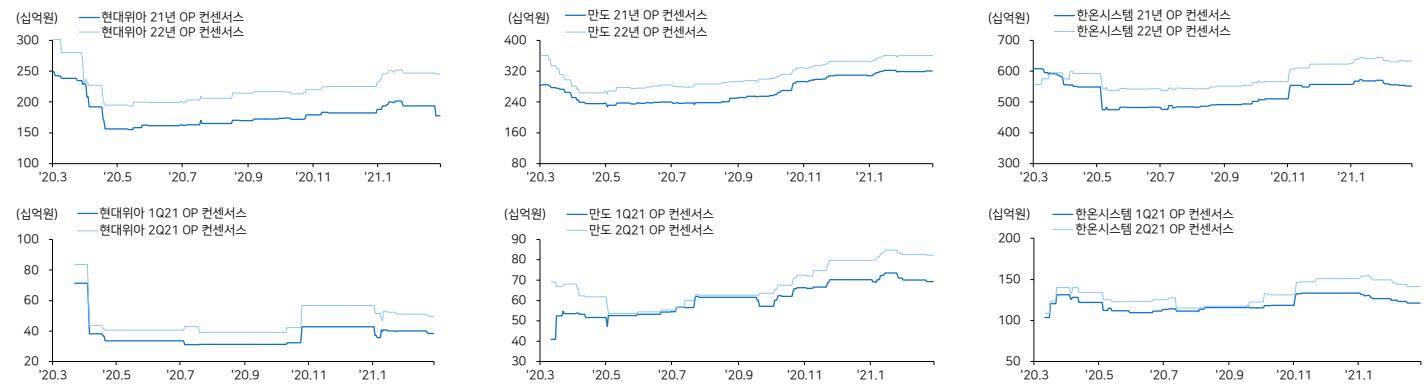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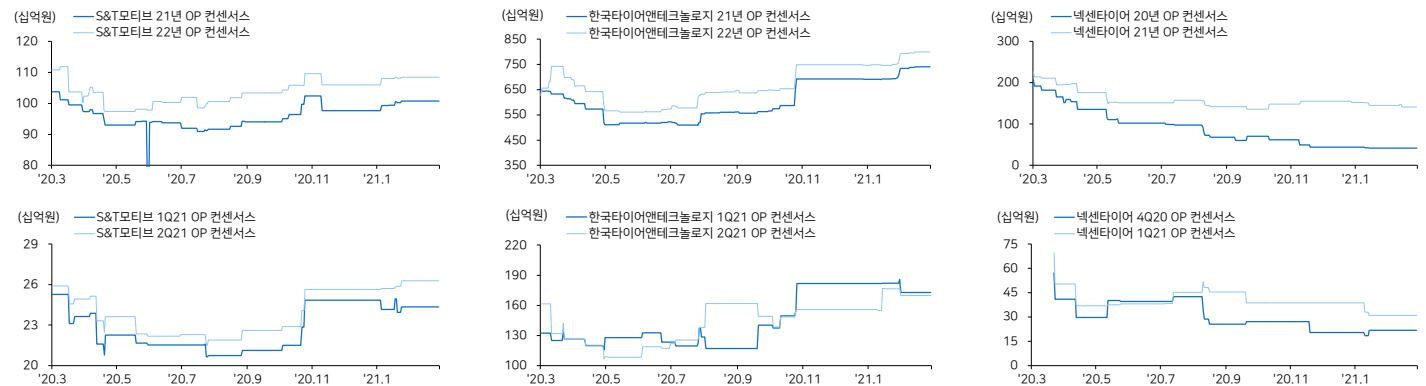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제2의 코나' 막는다... 전기차 배터리에 '블랙박스' · 안전기준↑ (머니투데이)

국토부는 이달 중 배터리 제작상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을 예정. 과방전 시험 등 제작과정에서 시행하는 7가지 사전테스트 외에 가. 길속 상황이나 사고예고 상황에서 배터리 발화 가능성을 추가로 사전시험할 계획.  
<https://bit.ly/2PK0X0V>

### 현대차 '생성... 2월판매 26% 쑥 (매일경제)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 '인도'에서 소형 해치백 i20와 소형 SUV 쏘넷, 크레타 등을 앞세워 좋은 성적을 거둔. 인도는 1000명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45대에 불과해 잠재력이 풍부한 시장으로 평가됨.  
<https://bit.ly/2PiWZrx>

### 현대모비스, 13개 개발사와 손잡고 '차량용 SW' 국산화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현대모비스가 국내 13개 전문 개발사들과 손잡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국산화에 나선다. 협력분야는 자율주행과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표준화 등으로 모두 미래차 시장에서 고부가가치가 예상되는 부분.  
<https://bit.ly/3eiEzI8>

### 가격 인하 효과? 테슬라, 日 판매 급증 (헤럴드경제)

테슬라가 일본 시장에서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폭넓적인 주문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고가의 해외 전기차(EV) 모델의 불모지로 통했던 만큼 가격을 무기로 한 테슬라의 생태계 확장 전략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  
<https://bit.ly/2PwYqZR>

### 호주 수소차 1호... '넥쏘' 가 미라이 놀렸다 (헤럴드경제)

현대차 'NEXO'가 호주의 첫 FCEV에 선정됨. 재생에너지 지원을 활용한 호주 정부의 수소 공급 확대 정책에 현대차 '넥쏘'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현대차는 넥쏘 출시 일정에 따라 충전 인프라 및 전용 서비스망을 확대할 계획.  
<https://bit.ly/3kUp9el>

### 기아, 러시아 가격 인상... 수익성 개선 기대 (THE GURU)

기아가 러시아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가격을 일제히 인상하여 수익성 개선이 기대됨. 기아 러시아법인은 올해 러시아 현지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가격을 1만~10만 루블(한화 약 15만~150만 원) 올림.  
<https://bit.ly/2PLHT4F>

### 비아두카, 알리바바카... 중국 빅테크 디 스마트카 뛰어든다 (조선일보)

알리바바는 지난해 11월 상하이자동차 '아이언모터스'를, 비아두카는 지난 2일 GEELEY와 함께 '지우자동차'를 설립하는 등, 중국 대표 IT기업들이 스마트카 시장에 진출 중. 화웨이도 전기차 제조설계 계약되고, ZTE는 전장부품 산업에 진출.  
<https://bit.ly/3rqJpb>

### Elon Musk: 10x More Tesla Cars To Get Full Self-Driving Beta Soon (Clean Technica)

CEO Elon Musk says it will double the number of cars in the system with the coming 8.2 version update, and that it will increase the number of cars sporting the firmware by 10x when version 8.3 comes along.  
<https://bit.ly/2Pi7gnP>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